

불의 기원과 사회적 의미

김 탁 환*

1. 서론

이 논문은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불의 신화를 검토하고, 이를 세계 여러 나라의 불의 신화들—특히, 중국, 일본, 시베리아 등지의 아시아권의 신화들을 중심으로—과 비교하여, 불의 신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은 기원과 존재방식에 따라 인간의 불과 자연의 불로 양분할 수 있다.1) 자연의 불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는 다시 하늘의 불(天火)과 땅의 불(地火)로 나뉜다. 하늘의 불은벼락에 의한 불이고 땅의 불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지진, 화산 등의 지각활동으로 일어나는 불이다. 인간의 불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불이다. 불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충격법과 마찰법이 있다. 충격법은 부싷돌을 황철광으로 세게 쳐서 불꽃을 만들고 거기에 마른 쉼처럼 인화하기 쉬운 것을 달아 불을 피우는 방법이며, 마찰법이란 나무판을 고정시키고 그에 직각으로 나무막대를 구멍 속에 넣어 마찰시켜 불을 피우는 방법이다.

불의 기원이 담긴 신화를 검토하는 작업은 '자연의 불의 기원'과 '인간의 불의 기원'을 찾는 작업으로 양분된다. 최초로 이 세상에 불이 만들어

* 해군사관학교 교수

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불' 항목 참조.

지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전자라면 자연의 불이 인간의 불로 전이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후자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전자는 천지만물이 만들어지는 창세의 과정에서, 후자는 자연의 불과 인류가 만들어진 후 자연의 불이 인간의 불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인간의 불의 기원을 탐색하는 작업은 자연의 불을 인간의 불로 전하는 존재와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에 관한 신화는 '창세신화'의 한 부분으로 위치시킬 것 뿐만 아니라²⁾ 창세 후 불을 인간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웅에 대한 숭고한 이야기와 불의 사회적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화신(火神)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포함된다.

영웅은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다.³⁾ 고대의 영웅은 '문화영웅'과 '통치영웅(혹은 정복영웅)'으로 분류된다. 문화영웅은 각 부족에게 필요한 문화를 가르쳐 주는 존재이다. 그가 가르쳐주는 것은 물과 불을 다스리는 방법, 곡식을 재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인데, 이러한 문화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 나가면서 취득한 것들이다. 문화영웅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같은 문화요소에 대한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각 집단의 생활방식—어로, 목축, 농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영웅의 이러한 면면들은 자연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인간 사회에 필요한 여러 체계들을 정비해 나가는 고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신화나 전설에서 문화영웅은 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인간에게 전달해주거나,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반드시 신에게서는 아니더라도) 문화를 찾아내어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⁴⁾

-
- 2) 김현선, 「북부·중부·동부 지역 창세신화소의 의미와 변이양상」, 한국구비문학연구회 발표요지, 1993. 5. 29. 김현선은 창세신화소를 여덟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과 불의 근본을 묻는 것을 세번째에 포함시키고 있다.
 - 3) 서대석은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영웅소설은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형상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주장은 서사문학 일반에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서론 참조.
 - 4) 허춘은 '신화적 영웅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문화를 가져다 주는 문화의 전달자인 문화영웅이고 창조자나 변형자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본문에서 논의되었지만, 문화영웅이 반드시 신에게서부터 인간에게 문화를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허춘, 「제주도무속신화의 문화영웅고」, 「제주도언어민속논총」, 1992.

이에 반해, 각 부족을 통치하면서 다른 부족을 공격하고 승리하는 통치 영웅은 고대적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는 존재이다. '건국신화'로 통칭되는 일군의 신화가 바로 이 '통치영웅'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영웅과 통치 영웅은 각각 따로 등장하기도 하고, 한 인물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적 우월성—이 때 문화는 도구와 무기의 제조기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 곧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영웅성을 함께 지닌 존재라고 하더라도 '불'과 관련된 문화영웅적인 모습만을 중심에 놓고 다루기로 한다.

불의 인간적 의미를 살피는 작업은 인간이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후 인간과 불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불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연구한다는 의미이다. 불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⁵⁾ 이 글에서는 '금속물'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존재로서의 불을 조망하겠다. 이것은 곧 불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의 자유로운 사용이 권력자에게 필수적이었던 이유를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설화들에서 확인하겠다. 한편, 불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은 주로 화재와 연결된다. 화재는 인간이 불을 잘못 다루어 일어나거나 거대한 자연의 불에 의해 인간이 노출되어 일어난다. 불에 대한 공포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과학적으로 화재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신화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고대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화재를 방지하려 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의 북방신화체계가 천부지모(天父地母)형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⁶⁾ 이것은 하늘을 숭앙하는 집단과 물이나 땅을 숭앙하는 집단의 결합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의 신화에서는 이 글에서 다룰 불을 다스리는 화신(火神)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5) 불의 사용은 인간의 의식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즉 생식에서 화식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졌고, 불로 구운 진흙으로 집을 짓고 그 가운데 화덕을 마련하여 더 따뜻하고 안전한 잠자리가 마련되었다.

6) 서대석, 「고대 건국신화와 현대 구비전승」,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그렇다면 불을 숭앙하는 집단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만약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존재했다면 그 집단의 신화가 지금까지 전해내려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의 해결을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우선 우리 나라에서 존재한 화신의 면모를 살펴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 존재하는 불과 관련된 신화를 검토하여 그 파편적인 모습을 화신(火神)의 모습이 뚜렷한 일본, 중국, 그리이스의 신화와 비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전설, 민담을 통해 불의 신화의 원래적 모습을 추론해보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 논의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무가>

1. <창세가>(김쌍돌이본, 함홍): 『조선신가유편』, 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2. <성조푸리>: 『조선신가유편』, 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3. <생굿>(강춘옥본, 함홍): 『관북지방무가』(추가), 임석재·장주근, 문교부, 1966.
4. <베포도엮침, 천지왕본푸리>(안사인·정주병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5. <초감제>,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민속원, 1991.
6. <불찍앗임>,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민속원, 1991.
7. <성주굿>: 『안성무가』, 서대석·박경신, 집문당, 1990.
8. <순산축원>(권순녀본): 『조선신화』, 松原孝俊 編, 1991.
9. <삼태자풀이>(정운학본, 평양): 『관서지방무가』, 임석재 외, 1966.

<구비설화>

1. <도깨비불>, 『구비문학대계』 2-2, 정신문화연구원, 1981.
2. <불타는 것으로 풍어 점치는 풍습>, 『구비문학대계』, 6-7, 정신문화연구원, 1985.
3. <불칼 꺾은 강감찬>, 『구비문학대계』 8-8, 정신문화연구원, 1983.
4. <불새>, 『구비문학대계』 8-1, 정신문화연구원, 1980.

5. <화룻불과 족제비와 금단지>, 『구비문학대계』 1-3, 정신문화연구원, 1980.

<기록설화>

1. <탈해왕>, 『삼국유사』.
2. <지귀>, 『수이전』.

외국 자료로는 일본, 중국, 시베리아와 내륙아시아, 그리이스로마의 신화를 참고했다. 일본신화는 『일본서기』(정음사, 1987)와 『古事記』(예전, 1987)에서, 중국신화는 『중국창세신화』(陶陽 鐘秀, 상해인민출판사, 1989)와 『중국상고신화』(劉城淮, 상해인민출판공사, 1988), 『중국의 신화』(김영구 編, 고려원, 1987)에서, 시베리아 및 내륙아시아의 신화는 『시베리아의 샤머니즘』(디오세지, 호팔 지음, 최길성 옮김, 민음사, 1988)에서, 그리이스로마신화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토마스 벌핀치 지음, 이윤기 옮김, 대원사, 1989)에서 불과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논의의 자료로 삼았다.

2. 불의 기원

2-1. 화신(火神)의 탄생

신화에서 불의 기원을 설명하는 첫번째 방법은 화신(火神)의 탄생 혹은 좌정이다. 불의 탄생은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서 어떤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화신의 탄생으로 해명되어 버린다. 화신은 창세신의 몸의 일부분이거나 혹은 신의 자식이거나 신의 부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 랍호족(拉祜族)신화에서 불은 천신(天神)이 자신의 심장을 떼어내어 만든 것이다.⁷⁾ 그리고 일본신화에서 불의 신 가구쓰치는 여신 이자나

7) 『중국창세신화』, p.274 참조.

미노미고토의 몸에서 나올 때, 그 뜨거움으로 이자나미노미고토를 죽게 하고 세상에 태어난다.⁸⁾ 그런데 가구쓰치는 이자나미노미고토의 음부를 태워죽였다는 불의 특징만을 드러낼 뿐이지 계속 불을 다스리지는 않는다. 가구쓰치는 이자나미노미고토의 남편, 곧 자신의 아버지인 이자나키노미고토의 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 때 가구쓰치의 몸은 여덟 명의 신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여덟 명의 신은 가구쓰치가 지닌 불의 성질을 더이상 지니지 않는다.⁹⁾ 따라서 랍호족 신화에서 신의 심장이 화해서 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나 일본신화에서 가구쓰치의 탄생은 불의 성질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베리아와 중국, 우리 나라의 화신은 불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불을 계속 지배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이다. 시베리아의 여러 부족에서 화신(火神)은 각 부족에 따라 그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여신(女神)으로서,¹⁰⁾ 최초로 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 쓰임을 관장한다.¹¹⁾ 특히 이 여신들은 불 뿐만 아니라 아이의 출산과 질병을 쫓아내는 일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불의 성질로부터 유추된—따뜻함, 포근함 : 어머니의 자궁 그리고 태워버림 : 병균의 박멸—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불의 기원을 신의 탄생이나 좌정으로 설명하는 대목은 <성조पुर이>와 <초감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8) 『일본서기』, pp.33-35, 참조.

9) 『고사기』, pp.48-55 참조.

10) 예를 들어보면, 각 부족은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신을 불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 앵가나산 족 : 투-나미, 유카길족 : 로시드아 마이, 에벵키족 : 할머니 토고 무순, 니브키족 : 트쿠릿, 나나이족 : 파드자, 돌간족 : 보코이.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pp.531-533 참조.

11) 앞의 주에서 살핀대로 시베리아의 각 부족에서 火神은 모두 여자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水神도 모두 여자로 설정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선, 火神이 여자인 것은 수인씨나 조왕신을 여자로 생각하는 중국이나 우리의 경우와 공통된다. 이 이유는 불을 간직하는 화로나 부엌의 아궁이를 여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불의 따뜻한 성질이 어머니의 성격—포근함과 아울러 번식하는—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 나라 북방계 신화의 특징인 天父地母 혹은 天父水母의 성질을 시베리아의 신화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둔다면, 시베리아에서 보이는 '火母神'의 모습을 우리 나라에 적용시켜 논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기후나 산업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지만 '火母神'이라는 공통되는 火神의性は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燧人氏 후에 나서
始鑽樹 불을 내어¹²⁾

선씨 할망 선씨 때에
맹개냥 불래냥글 부비난
불이 나완
조인화식을 가리친다.¹³⁾

<성조पुर리>와 <초감계>에서 화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은 모두 수인씨이다. 수인씨는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서 백성에게 화식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전설적인 제왕이다.¹⁴⁾ <성조पुर리>나 <초감계>에서는 여러 문화를 창조한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신들은 모두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다. 화신은 천지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각각의 신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문화와 사물의 창세신화 중 화신의 탄생 신화가 한 부분을 차지함을 나타낸다.

어떤 문화나 사물의 기원을 그에 대응하는 신의 탄생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문화나 사물을 최초의 순간부터 완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최초의 순간에 그 사물과 문화에 관련된 모든 법칙이 이미 만들어져 있음을 뜻한다. 즉 무(無)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간 것이 아니라 '전체'로부터 그 사물과 문화가 시작했음을 뜻한다. 여기서 '전체'는 그 사물이나 문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설령 인간은 그 사물이나 문화에 대해 부분적이나 표피적인 이해를 할지라도 그 사물이나 문화의 신은 최초의 순간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그 '전체'를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때 그 사물이나 기원에 존재하는 사물과 문화의 신은 그 사물과 문화의 변화하지 않는 본질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자기동일성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서사성을 획득할 수 없다. 즉 수인씨가 화신이 되기까지나 신농씨가 농업의 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서술될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전체'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오직 무(無)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

12) <성조पुर리>,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p.80.

13) 전성기, <초감계>(강태욱본), 『제주도무가본풀이 사전』, p.659.

14) 『중국창세신화』, p.274, 참조.

이다¹⁵⁾.

앞에서 살펴본 가구쓰치나 수인씨는 그 자체로 불의 본질과 그 법칙을 모두 알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가구쓰치나 수인씨가 태어나는 과정은 서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은 최초의 순간에 불과 함께 완전히 그 불의 모든 것을 아는 존재로서 자리잡는다. 서사의 시작, 다시 말해 그 신들의 움직임은 그 최초의 불이 인간에게 전해지는 순간에 나타난다.

2-2. 불의 전래

불의 전래는 이미 존재하는 불을 인간에게 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불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하다. 인간 사회에 전해지기 이전의 불은 신화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신성화되어 신의 불로 자리하거나¹⁶⁾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숨겨진 곳이거나¹⁷⁾ 아니면 신화 속에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¹⁸⁾ 이는 인간이 불(자연의 불)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성화하거나, 이

15) "신화는 새로운 우주적 상황 혹은 원초적 사건의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 창조의 이야기다. 그것은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는가를 말해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신화는 존재론과 결부된다. 그것도 오로지 실재에 대해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완전히 현현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엘리야데, 『성과 속』, 학민사, pp.73-74. 엘리야데는 신화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창조의 이야기이며, 그 창조는 최초의 순간에 완전히 현현한다고 주장한다. 기원, 즉 최초의 순간에 전부를 말하려는—그것은 그렇다고 말해졌으니까 그런 것이다—이러한 의식은 푸코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판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물들이 조물주의 손에서 찬란하게 출현했을 때, 이때가 사물들의 가장 지고한 완전한 순간이라고 말이다. 기원은 항상 몰락에 선행한다. 기원은 육체 이전에 세상과 시간 이전에 출현한다. 기원은 半神들과 연결되며, 기원 이야기는 항상 하나의 찬송가로 노래된다. (중략) 그러나 이제 이 길은 막혀 있다. 왜냐하면 원숭이 한 마리가 입구에서 있기 때문이다." 푸코, 『나이체, 계보학, 역사』, 『미셀 푸코』, 민음사, p.334.

16) 프로메테우스는 여신 아테나의 불을 자기 헛대에 옮겨 붙여서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p.39 참조.

17) <창세가>에서 불의 근본을 찾는 것은 '금당산 들어가서 한쪽은 시우쇠요/툭툭치니 불이 낫소'와 같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18) 고산족의 「神鳥傳次」에서 신조(神鳥)는 부리에 불을 머금어 고산족에게 불을 전해 주지만 그 새가 어디에서 불을 가져오는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미 인간이 알고 있는 불을 만드는 방법을 그 기원에 위치시키거나, 그 이전 단계를 이야기 속에서 아예 감추어버림을 뜻한다. 이중 첫번째는 신의 불을 훔쳐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두번째의 경우는 그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문제이며, 세번째는 첫번째, 두번째와 같은 필연성의 부재 속에서, 단지 인간에게 불이 전해지는 과정 자체가 드러난다. 신성한 불이든, 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든, 인간의 손에 불이 전해지기 이전의 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든지간에 불(불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불(불을 만드는 방법)이 전제됨으로써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때 불의 기원은 인간적 불의 기원이지만 그 자체의 기원은 아니다.

불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존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동물을 통한 전래, 두번째는 영웅적인 존재에 의한 전래, 세번째는 동물과 영웅적인 존재가 함께 등장하는 전래이다.

동물이나 곤충에 의해 불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¹⁹⁾ 중국 소수민족의 신화 중에서 고산족에게 불을 전해준 것은 '흑필사(黑必士)'라 불리운 새이며, 랍호족에게 천신의 심장으로 만든 불을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존재는 늑은 쥐이며, 태족에게 불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은 사마귀이다²⁰⁾. 동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불을 훔쳐내어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이 때 동물들은 랍호족의 늑은 쥐처럼 어떤 보상을 전제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고산족의 불새처럼 그 행동을 한 연후에 보상을 받기도 한다. 이 보상은 불이 매우 귀중한 것으로 인간이 어떤 보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함을 나타낸다.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달해준다는 것은 영웅적인 존재에 의한 불의 전래의 대표적인 경우인 프로메테우스에게서 확인된다. 프로메테우스는 만물의 으뜸을 차지할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하여 아테나의 불을 훔친다. 여

19) "불을 훔치는 것은 대부분 새, 즉 굴뚝새, 울새, 벌새 등 조그만 동물들이다. 때로는 그것은 꼬리 끝으로 불을 나르는 토끼, 오소리 또는 여우일 때도 있다."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p.461.

20) 『중국창세신화』, pp.273-274.

기서 프로메테우스의 행위는 인간에게 이로운 행동이었으므로 영웅적인 행위로 파악된다. 신의 불을 훔쳐낸 그의 용기와 대담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신을 속일 만큼의 능력은 높게 평가된다. 즉 프로메테우스는 전형적인 문화영웅으로 숭앙받게 된다. 이는 앞의 단락에서 불을 전해준 동물들이 대부분 숭앙받지 못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 동물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을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프로메테우스나 동물을 통한 불의 전래는 모두 특정 지역에 있는 불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가져오는 방법은 정당하지 못한 '훔치기'가 주를 이루지만, 훔쳐 온 불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옹호된다.²¹⁾

<창세가>와 <생긔>, <삼태자풀이>에서 드러나는 불의 기원은 앞의 두가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앞서의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세번째, 동물과 영웅적인 존재에 의한 전래에 해당하는 <창세가>와 <생긔>, <삼태자풀이>에서는 불의 기원을 알고 있는 동물(혹은 인간적인 존재)과 불을 찾으려는 영웅이 등장하고, 이 두 개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불을 찾아내는 과정이 그려진다. 해당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세가>

미력님 歲月에는 生火 食을 잡사시와/불 안이 너코 생나달을 잡사시와/
미력님은 섬두리로 잡수시와/말두리로 잡숫고 이에서는 못할너라/
내 이리 誕生하야 물의 根本 불의 근본/내 밧게는 업다 내여야 쓰겠다/

풀맷독이 잡아내여/스승물에 울너눗코/
숙문삼치 채리내여/여바라 풀맷독아 물의 根本 불의 根本 아느냐/

풀맷독이 말하기를/밤이면 이슬 바다먹고/
나지면 햇발 바다먹고/사는 짐생이 엇지 알나/
나보다 한번더 번지분/풀개고리를 불너 물어시오/
풀개고리를 잡아다가/숙문삼치 채리시며/

21) 불을 훔쳐오는 동물들과 프로메테우스의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바슬라르는 '프로메테우스컴플렉스'의 다양한 변주를 확인하고 있다. 바슬라르, 앞의 책, pp.437-448.

물의근본 불의 근본 아느냐/
 풀개고리 말하기를/밤이면 이슬 바다먹고/
 나지면 햇발 바다먹고/사는 증생이 엇지 알나/
 내보다 두세번 더 번지본/새앙쥐를 잡아다 물어보시오/
 새앙쥐를 잡아다가/속문삼치 채리내여/
 물의 根本 불의 根本 아느냐/
 쥐말이, 나를 무슨 功을 시워주겠습닛가/
 미련님말이, 너를 天下의 두지를 차지하라/

한죽, 쥐말이 금덩山 들어가서/한짝은 차들이오 한짝은 시우쇠요/
 툭툭 치니 불이 낮소/
 소하山 들어가니/삼취술술 나와 물의 根本/
 미련님 水火根本을 알엇스니/人間 말하여보자/

(2) <생긔>

석가임이 죄선국에 나와보니(중략) 人間 사람이 불 없이 어찌 사오/
 물없이 어찌사오/내미없이 어찌 살까?/
 불과 물이 있어야 된다/생쥐를 부들어서 생명 삼재 드리치니/
 풀난나를 받아먹고 덩불 속에 업드러 있는 짐상을 무삼일로 생명삼재
 드레치오?/
 불에 근본을 내라/글랑조차 그리시오/
 불의 근본은 같치드럴 것일랑/서인님이 잡숫기 前에도/
 우리만재 먹겠습니다/글랑 그래라/
 쥐 먹는 건 가리젠습니다/천태산 내막에 들어가서/
 차들을 놓고 수리치를 떼놓고/검운산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세번을 드레치면/불에 근본이 나옵니다/

(3) <삼태자풀이>

석가 열이/이 세상에/세상 配布를/나오실 적에/
 四月이라/초八日날/세상 배포를/나오신다/
 캄캄하고/어두워서/어퍼디면/자빠디면/
 하늘 녀을/내래가서/ 채도사를/불러놓고/
 묻는말이/여보세요/채도사요/해 달잡아/
 어디다 쫓나/水火잡아/어디다 쫓나/채도사가/
 하는 말씀/미련님이/하신 일을/나는 가서/
 모읍니다/석가열이/할 수가 없어/매를 들어/
 채도사를/치는구나/채도사가/매에 못이겨/
 개는 직고/하엿더라/그적에야/도롱 소매서/
 해 달 잡아/내어 놓니/이 세계가/밝았더라/
 日月일랑/明朗을 하야/낮이 되면/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뜬다/그적에야/물 한 동에/
 길어 내어/서인님이/다기수요/萬 人間에/
 生命水를 돌렸더라/불 한도막/잡아 내어/
 서인님에/고양 불에/萬 人間에/ 火食 불로/돌렸더라

먼저 <창세가>와 <생긋>, 그리고 <삼태자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문화영웅적인 존재는 <창세가>에서는 '미력님'이며, <생긋>, <삼태자풀이>에서는 '석가님(서인님)'이다. 그런데 <창세가>와 <생긋>에는 불을 찾아나서기 전에 두 개의 달과 두 개의 해 중에서 하나 씩을 없애는 부분이 먼저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삼태자풀이>에는 '석가님'이 '미력님'이 숨긴 해와 달을 물, 불과 함께 찾아내고 있다.

둘째, 불을 찾게 되는 과정은 <창세가>의 경우는 '미력님 세월에는 생화식을 잡사시와/불안이 넛코 생나달을 잡사시와/미력님은 섬두리로 잡사시와/말두리로 잡숯고 이레서는 못할러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미력님이 곡식을 낚것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찾는다든진술이 나와 있고, <생긋>에서는 '인간 사람이 불 없이 어찌 사오 물없이 어찌사오'와 같이 막연하게 그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삼태자풀이>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놓지는 않았지만 '화식 불로/돌렸더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창세가>와 같이 생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불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불의 여러 가지 효용—밝음, 짐승을 좇음, 보은 등—중에서 음식을 익히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불의 근본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권순녀의 <순산축원>에서도 태초의 상황을 화식(火食)을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짓고 있다.

옛날 예적 간날 갈 적에는 사람이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火食으로 아니먹기 때문에 그 때 미력님의 시절에 그 때 그 시절에는 해도 두 분 달도 두 분 마련하고 또 옷나무에는 옷이 열고 밥나무에는 밥이 열고 火食으로 아니 먹기 때문에 사람은 火食으로 아니 먹기 때문에 그 때 그 시절 미력님의 시절에는 이 마음은 모두 자손들이 운순하고 병신 자손도 없고 그래 미력님의 시절에는 그래 했는데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농새법도 없고 화식 지어먹는 법도 없고²²⁾

'화식(火食) 지어먹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과 '농사법'을 모른다는 것이

22) 松原孝俊, 『조선신화』, p.425.

나란히 병치되는 위의 언급을 통해 화식과 농사가 긴밀히 연결되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곧 그 농사를 통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불에 익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³⁾ 따라서 우리 나라의 화신(火神)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집단의 사유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짐승으로 <창세가>와 <생긔>에서는 공통적으로 쥐가 나온다. 그러나 문화영웅이 쥐를 찾는 과정은 각각 다르다. <창세가>에서는 '풀뗏둑'을 먼저 잡아서 묻고, 그 다음에는 '풀개고리'를 잡아서 묻고, 그리고 '새앙쥐'를 잡아서 묻는 것으로 나오는데 비해 <생긔>에서는 바로 '생쥐를 부풀어서' 불의 근원을 묻는다. <생긔>에서도 '물 개고리'가 나오는데, 이는 불의 근원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알고 있는 동물로 나온다. 여기서 쥐가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먼저, 쥐란 화식(火食)을 하기 전에 곡식들을 축내는 짐승으로 농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둘째, 쥐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지만, 가축처럼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다. 따라서 쥐는 인간 세계에 함께 있으면서도 인간 세계 밖을 항상 알고 있을 것이란 유추가 가능하다. 셋째, 쥐는 항상 어두운 밤에만 활동하고 주로 은밀하게 집의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닌다. 따라서 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을 알고 있는 짐승으로 쥐가 선택되었다.

<삼태자풀이>에서는 '채도사'가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문맥으로 보아 채도사는 석가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미러님이 한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런데 채도사는 <창세가>나 <생긔>의 쥐처럼 그 성격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불을 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존재로만 등장한다.

넷째, 불의 근원을 알고 있는 '새앙쥐', '채도사'와 문화영웅인 '미러님', '석가님'과의 관계의 유사성이다. 즉 미러님과 석가님은 해와 달의 갯수를 바로잡을 만큼 신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새앙쥐(채도사)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이다. 그러나 미러님과 석가님은 불의 근원을 모른

23) 농업의 신 '神農'이 곧 '炎齊'임은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염제는 태양을 다스리는 신임과 동시에 불을 지배하는 신으로, 이를 통해 보더라도 농사와 불의 친연성이 확인된다. 松原孝俊, 『중국의 신화』, pp.44-50.

다. 반대로 그보다는 하찮은 존재인 새앙쥐(채도사)는 신성한 존재들도 모르는 불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미력님과 석가님은 새앙쥐를 위협할 수 있지만 불의 근본을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새앙쥐(채도사)에게 달려있다.

다섯째, 미력님과 석가님은 불의 근원을 알기 위해, 불의 근원을 아는 새앙쥐와 채도사를 위협하고 때린다. 새앙쥐와 채도사는 아무 잘못도 없이 맞는다. 여기서 문제는 때리는 존재나 맞는 존재가 그 때림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즉 불의 근원을 알기 위해 미력님과 석가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새앙쥐나 채도사는 자신들이 불의 근원을 알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얻어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은 두가지이다. 그것은 아픔을 견디며 불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그 아픔 때문에 아무 보상없이 불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여섯째, 새앙쥐는 미력님과 석가님에게 불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창세가>에서는 '쥐말이 나를 무슨 공을 시워주겠슴닛가/미력님말이 너를 천하의 두지를 차지하라'와 같이 천하의 뒤주를 보상으로 받고, <생긔>에서는 '서인님이 잡숫기 전에도/우리 만재 먹겠습니다. /글랄 그래라'에서 보듯이 석가님이 곡식을 먹기 전에 먼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새앙쥐는 확보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태자풀이>에서 채도사는 '매에 못이겨' 불의 근원을 말한다. 여기서 새앙쥐는 매개적인 역할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함에 반해 채도사는 그 성격이 부각되지 않고 단순히 매개자의 역할만을 행함을 잘 보여준다.

일곱째, 새앙쥐는 불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불을 피우기에 용이한 장소를 가르쳐 준다. <창세가>에서는 '쥐말이 금덩산 들어가서/한짝은 차들이오 한짝은 시우쇠요/톡톡치니 불이났소'로 불의 근본을 설명하고, <생긔>에서는 '천태산 내막에 들어가서/차들을 놓고 수리치를 때놓고/검운산에 쇠에 쇠끝을 놓고/삼 세 번을 드레치며/ 불의 근본이 나옵니다'로 불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다. <창세가>에서는 새앙쥐가 물의 근본까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으나 <생긔>에서는 물의 근본을 물 개고리가 설명하는 차이가 있다²⁴⁾.

이상의 분석을 통해 <창세가>와 <생긔>, <삼태자풀이>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첫째, 불의 기원을 아는 동물(혹은 사람)/불의 기원을 모르는 문화영웅이 등장한다는 점, 둘째, 불의 기원을 문화영웅은 위협과 때림을 통해 알아낸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셋째, 불의 기원은 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토대로, 불의 전래에 문화영웅과 동물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를 동물만이 등장하거나 문화영웅만이 등장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불의 기원을 안다/모른다'의 대립은 동물이나 문화영웅만이 등장하는 신화에서는 '기원을 아는 동물/기원을 모르는 인간', '기원을 아는 문화영웅/기원을 모르는 인간'과 같이 나타난다. 즉 이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나 접근하기 어려운 불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창세가>나 <생긔>, <삼태자풀이>는 기원을 아는 동물(혹은 매개자)/기원을 모르는 문화영웅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불을 가져오기 이전에 불의 기원을 알아내는 과정이 문제가 된다. 즉 전자는 불을 훔쳐오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후자는 불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전자는 '금지/금지의 파기'로 정리할 수 있고, 후자는 '무지/알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보상의 문제는 승양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승양받고, 불을 훔치는데 대가를 요구한 늑은 쥐나 사마귀는 승양받지 못한다. 인간세계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을 찾는 — 흡사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존재인 — '미력님'과 '석가님'은 승양받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새앙쥐'는 승양받지 못함이 <창세가>와 <생긔>에서는 구조적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24)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불을 피우는 방법은 마찰법과 충격법이 있다. 마찰법은 오랫동안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내는 것으로 그 행동이 정적임에 반해 충격법은 부싯돌을 부딪혀서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행동이 동적이다. 따라서 전자는 여성적인 문화에 부합되고 후자는 남성적인 문화와 조응한다. 한반도의 신화에서 불을 일으키는 방법은 충격법이다. 이를 통해 불과 관련된 우리의 문화가 남성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프로메테우스나 불을 전해준 동물들은 불 자체를—햇불의 형태이든 불씨의 형태이든—가져오는데 비해 <창세가>와 <생긔>, <삼태자풀이>에서는 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제기되지 않는다. 유일한 불은 옮겨오는 도중에 꺼지거나 다 타버리기도 하지만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영원히 불을 잃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불의 인간적인 사용을 용이하게 했음을 의미한다.

3. 불의 사회적 의미

3-1. 재앙의 신

인간이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불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번개로 대표되는 천화(天火)와 화산과 지진으로 대표되는 지화(地火)는 인간이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²⁵⁾ 특히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재물과 집과 인간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인간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이러한 원인 모를 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그 불을 내는 화신(火神)을 상징하고 그를 숭앙하는 대목은 무가와 구비설화, 기록설화에서 자주 발견된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인씨나 조왕신인 축융과는 달리 인간에게 재앙을 안겨다주는 신으로 회록(回祿)이 별도로 상징되어 있다. 회록은 오른쪽 팔이 없는 외팔이다. 회록은 불의 나쁜 면인 화재를 일으키는 신으로 인간의 행위에 따라 재앙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다.²⁶⁾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에게 기도를 올려야 한다.

25) 영웅적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기 위해 天火인 번개를 제압하는 이야기인 <불칼귀>은 강감찬>은 天火로 대표되는 자연의 불을 인간이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6) 劉城淮, 『중국상고신화』, pp.257-259 참조.

우리의 신화에서도 회록과 같이 재앙을 안겨주는 신을 살피볼 수 있다. 먼저 기록설화에서는 <지귀설화>를 들 수 있다. 지귀는 선덕여왕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 번민하고 절망하여 마음의 불이 일어나 불귀신으로 변했다. 선덕왕은 술사에게 명해 주문을 짓게 했다. '지귀의 마음 속 불이 몸을 태워 불귀신이 되었구나. 푸른 바다 밖으로 흘려 보내, 보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으리' 그때 풍속에 이 말을 문외 벽에 붙여 화재를 막았다고 한다.²⁷⁾ 즉 지귀는 그 자체로 불이 된 화신이면서도 재앙을 예방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구비설화에서는 <도깨비불 이야기>²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상한 불이 산 속에서 어른거리거나 불꽃들이 모인 곳에서 도깨비를 보았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 설화는 화재에 대한 예방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안꼬골에 자꾸 불이 나므로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불이 나는 곳에는 반드시 한 노인이 나타난다. 신기한 점쟁이가 서낭에 개를 잡아서 재물로 바치라고 한다. 개를 재물로 바치니 더이상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개를 좋아하는 것은 도깨비이므로 도깨비가 불을 낸 것이다.

이 설화는 이유없이 일어나는 화재와 이 화재를 막기 위해서 도깨비에게 개를 재물로 바친다는 이야기다. 불을 내는 화신으로 도깨비가 설정되었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모습에서 재앙을 일으키는 화신을 숭앙하는 면모가 드러난다.

무가에서는 <불찍앗임>을 예로 들 수 있다. <불찍앗임>은 화재가 나면 그날 당장 제를 지내게 되는 하나의 무속의례이다. 이 <불찍앗임>은 짚으로 초인을 만들어 이를 태우면서²⁹⁾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집에 불이 나면 일곱 집에 강 권제 빌어당 잡밭하곡 지물 찰령 화덕 진군에 퇴송하여사 합네다

그영치 아너민 동니에 자꾸 불 날 일이 생긴댜 합네다

화덕진군은 옥황에 남정문밖에 사는 신위인디 이 신을 빌어당 옥황테레 돌려 보내지 아녀고는 동니 사름들안티 집 툰영 할루산이 강 흔채 살랭옥을

27) 이 내용은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pp.181-182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28) 『한국구비문학대계』 2-2, 정신문화연구원, 1981, pp.178-182 참조.

29) 인형의 소각에 대한 다양한 의미는 프레이저, 『황금가지』, pp.352-354 참조.

듣게 됩니다³⁰⁾

여기서 화덕진군은 앞서 살핀 지귀나 도깨비와 같이 화재를 일으키는 화신이면서 재앙을 예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숭앙받는 존재이다.³¹⁾

이상에서 살피듯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신은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지귀, 도깨비, 화덕진군 등 모셔지는 화신은 각기 다르지만 그 화신의 성격이나 예를 올리는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화신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지귀이다. 지귀는 불귀신이 되기 이전에 인간세상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그 원한을 풀기 위해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다. 즉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화신들이 화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화신들이 만족할 만큼의 제물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불만족/만족의 구도 속에서 지귀, 도깨비, 화덕진군의 움직임은 결정되며, 화신들은 언제나 불만족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화재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화신들을 만족시켜 화재를 막으려는 것이 재앙을 주는 화신을 모시는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3-2. 불과 권력

불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며, 다음으로 여러 가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불을 꺼트리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³²⁾ 생활을 위해 불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나 수단들을 불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수단과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기이다.

30) 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751.

31) 화덕진군이 화재를 일으키는 모습은 <천지왕본풀이>(안사인본)에서도 나타난다. 옥황상제는 수명장계를 벌주기 위해 '화덕진군 화덕장군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화덕진군 화덕사제 나간 딴 불찍사제라' 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사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32) <화룻불과 족제비와 금단지>에서 불씨를 지켜내는 머느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불의 끊임없이 타오름과 이어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이 없으면 철기는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을 통해 쇠를 굽고 담금질 할 때에만 철기는 인간에게 의미가 있다. 즉 쇠는 불로부터 나오고 모든 쇠는 불의 속성을 그 자체 내에 가지고 있다.³³⁾ 쇠가 곧 불인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그리이스의 불카노스와 우리 나라의 <불새>를 들 수 있다.

불카노스는 대장간의 신이다. 그가 만든 태양 이륜차는 모두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태양이륜차에 닿는 모든 사물은 불이 붙는다. 따라서 너무 높히 마차를 몰면 천상에 있는 신들의 처소를 불태우게 되고 너무 낮게 몰면 땅에 불을 지르게 된다. 따라서 아무 것도 닿지 않는 하늘과 땅의 중간으로만 마차를 몬다. 즉 불카노스가 금을 불로 녹여 만든 태양이륜차는 그 자체로 불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새>³⁴⁾는 불가사리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쇠를 먹어 치운다거나 중이 자신의 원한 때문에 작은 밥알로 불가사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불가사리는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함에 비해 불새는 그 자체로 불의 성격을 지닌다. 불새는 쇠붙이를 먹으면서 점점 몸이 비대해진다. 그런데 불새가 지나갈 때 '이 집에 짓씩 이래 지르면 불이 확 일어나고. 그래 인자 그 집을 다 사라빠고 나모 저 집에 와서 짓씩 이라고 그 집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와 같이 불새의 몸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이 붙어 버린다. 쇠붙이를 먹어 몸이 온통 쇠인 새의 몸에 닿는 것이 곧 불이 붙는다는 것은 쇠와 불의 친연성을 드러내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³⁵⁾

불에 담금질된 철제는 인간의 삶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권력자는 철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첫째,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생산력을 증대시켰으며, 둘째, 철제 무기를 만들어 다른 민족을 정복해 나갔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의 쇠의 사용은 쇠를 가진 자가 곧 권력을 장악하게 되며,

33) 「금의 정수는 불 그 자체이다」, 『불의 정신분석』, p.493.

34) 『구비문학대계』, 8-1, 정문연, 1980, pp.231-241.

35) 불새의 죽음은 불가사리의 죽음과 같이 명확하지 않다. 불가사리처럼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저 부적 한 장을 불새의 꼬랑지에 매달으로써 불새는 죽고 만다. 이미 불의 성격까지 불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에 의해 죽일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불로 쇠를 제련할 수 있는 종족이 다른 종족을 정복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은 곧 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불을 가지고 쇠를 제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은 불로 만든 쇠로부터 나오며 권력자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불을 잘 다룰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했다.

중국의 치우(蚩尤)는 쇠를 자유자재로 제련하여 무기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모래, 돌, 쇳덩이 등을 먹고 살았으며, 날카로운 세모창, 단단하고 뾰족한 갈대창,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 견고한 방패, 가벼워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과 화살 등의 무기를 잘 만들었다. 치우는 철제 농기구를 만들지는 않고 신농이 지배하던 남방을 쳐서 빼앗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볼 때 치우는 철제 무기를 사용한 정복(약탈)부족적 성격을 띤다. 치우와 황제(黃帝)의 대결은 격렬하고 좀체 그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이는 치우의 능력이 중국 전체를 다스릴만큼 대단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치우는 황제에게 패하여 죽음을 당하지만, 치우를 통해 우리는 불로써 쇠를 제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고대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³⁶⁾

불을 사용해서 철제 연장을 만드는 모습은 <성주곡>에서도 확인된다. 하우황은 어느날 천하궁의 성주를 만들라는 명을 받고 그 성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연장이 없어 걱정한다. 이를 본 하우황의 아내가 하우황에게 연장을 만들어준다. 이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우황님 성주이룩 가자하니
 그전씨던 구연장없어 성주이룩 못간다고 여쭙어라
 저 부인네 거동보소/
 사해용왕에 공식 갖다 피어놓고
 허공에 소지 한장 떨어리니/
 모두다 난데없는 땀쟁이 동구 박을 당도했네
 난데없는 땀쟁이 동구 박을 당도했네/
 하우황님 하우황님 성주이룩 가시는데
 연부연장 없어 성주이룩 못간다고 여쭙어라/
 하우황님 그참저참 근심중에 누웠더니

36) 『중국의 신화』, pp.92-106 참조.

저 부인네 거동봐라
 사해용왕에 가서 청수기도 빌고나니/
 난데없는 풀무쟁이 풀무독을 걸머지고
 땀뿜을 때뿜을 걸머지고 대마당에다
 무쇠땀말 참쇠땀말 구리쇠땀말 뜯쇠땀말/
 구리쇠땀말 뜯쇠땀말 무쇠땀말
 열에 열땀말이 모였구나
 대마당에 대풀무독 소마당에 소풀무독 묻어 놓아/
 대톱소톱을 장만하고 대도구소도구 장만하고
 고등에다 모두 끌이며 오유칼 모두 장만해야/
 싯톱을 장만하여 끝미 망태기에 넣고³⁷⁾

위의 장면에서는 모두 두명의 인물이 나온다. 한 사람은 성주를 건축하는 기술이 뛰어나 천하공을 만들라는 명을 받는 하우황이고, 다른 사람은 연장이 없어 걱정하는 하우황에게 쇠를 제련하여 연장을 만들어주는 하우황의 아내이다. 하우황은 기술은 있으나 거기에 부합하는 도구가 없는 것이며, 아내는 그 연장을 만들 만큼의 제련술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하우황이 빠지는 어려움은 건축해야 할 건물이 너무 거대하다는 데 있다. 그는 '어려서 장난을 놀아에도 나무깎아 집짓는 장난을 하였구나 흙을 가지고 집터땀는 장난 하였구나³⁸⁾'에서 보듯이 나무를 깎거나 흙으로 집을 짓는 것에는 능숙하다. 그러나 그런 그도 천하공을 짓는 데에는 주저하는데, 그 이유는 그토록 거대한 집을 짓기에는 자신이 가진 연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 연장이란 곧 그의 생산력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는 자신의 생산력을 뛰어넘는 일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舊)연장보다 훨씬 강하고 날카로운 쇠로 만든 연장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우황에게 그 연장을 만들어 줄 대장장이가 필요하다. <성주>에서 하우황의 아내가 바로 그 대장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받은 열땀말의 쇠를 가지고 풀무에 넣어 능숙하게 연장을 만들어낸다. 또한 그녀는 '부인 말이라고 허사로 여기지 마시고 황산땀 가시거든 난데없는 소지맹이 나시거든 인구대척 하질말고 돈담무식 가시야지' 만약 땀구를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경고를 하우

37) 『안성무가』, pp.275-276.

38) 앞의 책, p.274.

황에게 할 정도로 신통력을 지닌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하우황의 아내는 대장장이이면서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고 금기를 내리는 샤만이며³⁹⁾, 하우황은 아직 철제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로서, 샤만에 대한 믿음도 많이 약화된 모습을 드러내지만 아직 완전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우황이 아내의 말을 어기고 소지맹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하우황의 아내가 소지맹이로부터 정절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지혜를 통해서이다. <성주굿>에서 하우황은 완전히 한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능하고 어리석은 면이 부각되는데, 소지맹이는 이 틈을 타서 철기문명—신화에서는 하우황의 아내를—빼앗으려는 인물이다. 하우왕의 아내는 대장장이일 뿐만 아니라 샤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지맹이로 대표되는 집단의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한다. 하우황은 아내가 준 연장으로 천하공을 사흘만에—사흘만에 천하공을 다 지었다는 것은, 이제 하우황이 철제 연장에 익숙해졌음을 의미하며, 그만큼의 생산력이 증가됐음을 뜻한다—짓고 돌아와 소지맹이를 잡아 죽인다. 이는 하우황과 아내로 대표되는 집단이 불로 쇠를 녹여 연장을 만들어내고 그 연장으로 타부족을 정복하거나 타부족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만큼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즉 샤만이면서 쇠를 잘 제련하는 계층과 그 계층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계층이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부족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성주굿>은 바로 철기문명이 우리 나라에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각 부족 간의 대립과 결합의 양상을 그대로 잘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하겠다.

<탈해왕>은 불과 쇠와 권력의 친연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기록설화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탈해는 토함산 위에서 지세가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을 얻기 위해 숫들과 숫을 그 집 곁에 놓는다.
- 2) 다음날 탈해는 호공의 땅이 자기 것이라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툰다.
- 3) 관청에서 탈해는 자신의 조상이 원래 대장장이인데, 잠시 이웃고을에

39) 대장장이와 샤만의 친연성에 대해서는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59-61 참조.

간 사이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 4) 탈해의 말을 따라 땅을 파보니 솥들과 솥이 나왔다. 탈해는 그 집을 빼앗았다.
- 5) 남해왕은 탈해의 지혜로움을 알고 만공주와 탈해를 혼인시켰다.⁴⁰⁾

탈해는 스스로를 용성국 사람이라 말한다. 이는 그가 기존 신라의 권력층에 속하지 않은 인물임을 나타낸다. 그가 경주의 성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원래는 신라 성안에 살았던 사람임을 증명해야 했다. 탈해는 자신이 대장장이의 자손임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대장장은 경주성안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장장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종족의 풍요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권력자와 함께 존재해야 한다. 탈해가 거짓으로라도 대장장이의 자손으로 꾸민 것은, 자신이 이전에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며,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즉 권력의 핵심부에 자신은 자리잡을 만한 능력과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⁴¹⁾

탈해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계기는 남해왕이 탈해와 호공의 다툼에서 탈해의 지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 탈해와 호공은 명당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적대적인 두 정치세력을 대표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운다. 즉 그 명당 자리가 자신의 소유임을 말로써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 땅의 근본적인 주인을 찾는 싸움에서 탈해가 스스로 대장장이의 자손임을 내세워 승리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대장장은 불의 인간적 사용, 다시 말해 불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전형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문화의 시작과 함께 대장장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땅에서 문화 생활을 시작한 최초

4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탈해이사금에는 호공의 집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았고만 되어 있고, 그 속임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41) 김열규는 탈해전승을 논의하면서, 탈해가 물었던 솥을 파내어 스스로 대장장이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물혀졌거나 잃어버린 물건 찾기” 민담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이 자체를 하나의 競任式이나 入社式 주지로 파악하였다.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 연구』, pp.102-110 참조. 그리고 허춘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탈해가 야장무(冶匠巫)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허춘, 앞의 논문, p.298 참조.

의 존재는 당연히 대장장이가 되는 것이다. 둘째, 앞서 지적했듯이 불을 통한 금속의 사용은 권력과 매우 긴밀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탈해는 자신을 대장장이의 자손으로 주장함으로써 호공과 대등한 사회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탈해와 같이 대장장이의 자손인 존재가 — 혹은 자손이었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불과 쇠를 다루는 자가 종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우리 나라 고대의 종족 사회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또한 탈해의 행동에서 그가 앞서 <성주국>에서 하우황의 아내처럼 무력보다는 지혜를 통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탈해는 단순히 대장장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샤만이었을 추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는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에서 탈해가 왕과 대결하여 패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술법 대결은 탈해가 철기문명을 지닌 집단인 우두머리이고 샤만으로, 계속 지역을 이동하면서 여러 집단과 부딪혀 싸웠음을 드러낸다고 하겠다.⁴²⁾ 이 과정에서 가락국에서 패배한 탈해는 신라로 달아났으며, 신라에서는 세력을 얻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불은 청동기와 철기문명을 일으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불을 잘 다루는 자가 곧 고대에는 권력을 잡았음을 알릴 수 있다. 곧 고대의 권력자는 대장장이이면서, 샤만이었음을 위에 제시한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의 기원은 ‘자연의 불의 기원’

42) 석탈해는 龍城國, 正明國, 玩夏國 등에서 온 것으로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상이한 국가명이 사용되는 것도 역시 석탈해의 집단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곳을 이동하여 다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 ‘인간의 불의 기원’으로 양분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는 창세의 영역에서, 후자는 문화영웅의 영역에서 각각 논의될 수 있다. 창세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의 기원은 신의 좌정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서사성이 매우 빈약하다. 우리 나라 신화에서 불의 전래는 문화영웅(석가, 미륵)과 불의 기원을 알려주는 매개자(쥐, 채도사) 사이에서 앎/모름의 대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 기원은 불을 일으키는 ‘방법’이며, 그 방법을 알리는 목적은 ‘화식(火食)’을 하기 위해서인 바, 이는 우리 나라의 불의 신화가 농경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짐을 보여준다. 불의 사회적 의미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불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는 화재와 연결되며, 이 때 화재를 일으키는 신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진다. 불이 가진 긍정적인 면은 불이 인간의 생산력을 신장시키는 여러 철제 도구의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 불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장과 무기를 만드는 자나 집단은 곧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성주군>이나 <석탈해>를 통해 고대의 권력자가 대장장이이면서도 지혜를 가진 사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 김태곤 편저,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 김현선, 「북부·중부·동부 지역 창세 신화소의 의미와 변이양상」, 한국구비문학연구회 발표요지, 1993, 5, 29.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 _____,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_____, 「고대 건국신화와 현대 구비전승」,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 _____,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1집,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_____, 「한국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7집, 고전문학연구회, 1992.
- 허 춘, 「제주도무속신화의 문화영웅고」, 『제주도언어민속논총』, 1992.
-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삼성출판사, 1988.
- 프레이저, 『황금가지』, 삼성출판사, 1988.